

35 큰 용사가 된 기드온

Chapter

삿 6~7장

찬송가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양 88장 (에브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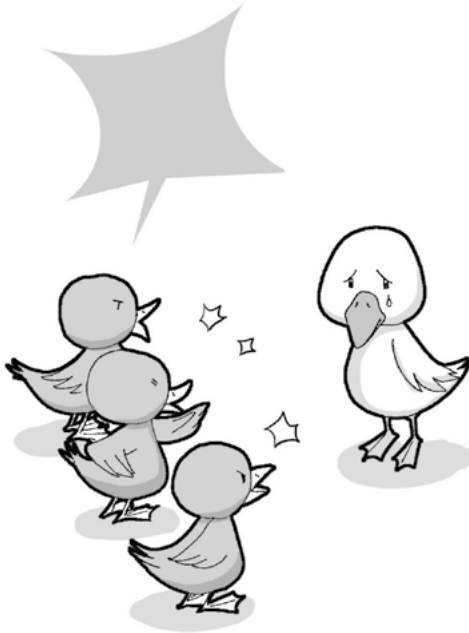
오늘 배울



말씀

1.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압니다.
2.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압니다.

마음 열기



세상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를 정의해 봅시다.

"나는 _____ 이다."



말씀을 이해하기

공과말씀정리

하나님의 구원으로 40년간 평안을 누린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이란 이름은 ‘크다, 힘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과는 반대되는 약하고 비겁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밭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리가 없을 뿐더러 자신은 큰 용사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증거 보기를 여러 차례 원했으며,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적을 통하여 확증해 주셨습니다. 결국 소명을 받아들인 기드온은 먼저,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아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사람들을 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인 자들 중 두려워하는 자와 시냇가에서 물을 마실 때 주위를 경계하지 않은 자들을 제외한 300명을 전쟁에 나갈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과 온전히 마음이 연합된 300용사는 나팔과 횃불 그리고 향아리를 가지고 밤중에 적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향아리를 깨트리며 횃불을 밝히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서로를 치게 하고 도망케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드온을 다듬으셔서 큰 용사로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삿 6:12)

And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to him, “The LORD is with you, you mighty man of valor!” (Jg 6:12)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삿 6:14~16)

(눅 5:8~10)

(엡 2:10)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기드온이 승리한 과정을 통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 봅시다.

1. 사사기 6장 17~23절에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로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임을 확인하고자 했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이러한 증거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사사기 6장 25~27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들은 무엇인가요?
3. 사사기 7장에 하나님께서는 3만 2천명의 이스라엘 군사 중 오직 300명만을 선택하셔서 13만 5천명의 적군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 뭘까요?
4. 사사기 7장 16~23절에 보면 기드온과 300 용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햇불이 빛을 발할 때 적군이 도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 항아리, 햇불은 각각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써 보세요.
5.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가 깨져서 빛 된 생활을 할 때에야 우리가 외치는 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어둠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생활 가운데 우상은 없는지, 육신이 깨지는 희생을 싫어하는 마음은 없는지, 그리고 어두운 생활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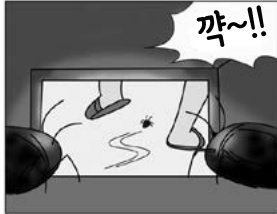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서로 마음을 모아 협력할 때 주님이 승리케 해주심을 믿고 하나 되기에 힘쓰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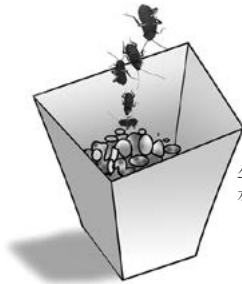
하나님 앞에 죄인은



더러운 바퀴벌레가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냥 두시겠습니까?



잡아서 쓰레받기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서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혹시 바퀴벌레를 죽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을 바퀴벌레에 비유하는 건 좀 불쾌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시는 관점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나요? 맘 아프지 않나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에게 어울리는 곳은 불못 지옥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 3:12)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어느 마을에 많은 부를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 부자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발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청년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 근검 절약하는 생활을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이 방법은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다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부자노인은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으나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도와주심을 입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믿고 담대함으로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